머리말

세계 각국은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인한 손실금액이 전체 보험금의 1 15%에 이른다. 미국 전미보험범죄국(NICB :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에서 손해보험 산업의 사기 규모를 200억불에서 2001년 300억불로 확대, 발표하는 것을 보아도 그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매년 약 5,000건(관련 금액 약 300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보험사기의 은닉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손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과 계약자의 역선택 등이 사기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험사기는 점차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내부적인 경영상의 손실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범죄성향을 자극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의 모럴해저드를 줄이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최근 들어 보험회사, 감독당국 차원에서 보험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의 보험사기관리 시스템의 구축·강화 시 참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기관리 및 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 유수보험사의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사기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국내 보험사기관리실태 파악에 있어서 현장에 가장 근접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보험회사 기획조사부, 손해사정팀(보험금지급심사팀),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 Special Investigation Unit)·사기전담조직 관련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모든 분들의 성의있는 도움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안철경·조혜원·김경환)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3월

보 험 개 발 원
원장 임 재 영